

(집중호우 성주) 집중호우 대비, 성주댐 수위 70% 이하 유지

✎ 이홍섭 기자 | ㉠ 승인 2024.07.11 15:12

성주댐, 적절한 수위조절로 하류지역 피해없어



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저수율 70%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 성주댐의 모습.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성주지역 영농현장 보호를 위해 성주댐 저수율을 70% 이하로 유지하며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.

성주지사는 집중호우 현상으로 인한 저수지 범람 및 영농현장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계획적으로 성주댐의 수량을 조절하는 등 다년간의 시설운영 데이터와 유지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.

특히 홍수예측, 우천시 사전방류 등을 통한 홍수기 제한 수위 설정 등 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수문 운영 기준에 따라 성주댐의 저수율을 70%(7월 8일 당시 34%) 이하로 유지하는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.

이로 인해 최근 성주지역 호우주의보 및 경보 발령에도 큰 피해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성주참외 등의 농경지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“성주지사는 7~8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성주댐의 수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주야로 운영하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영농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자원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
이홍섭 기자 hslee@idaegu.com



이홍섭 기자 hslee@idaegu.com